



2026. 6.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손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6. 6. 7.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다양한 은사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순장님, 하나님께서 시애틀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같은 계절,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찬란한 햇살과 짙어가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6월의 풍경처럼, 우리 순장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더욱 풍성히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6월 순모임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12장을 “은사장”,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위로하며, 또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지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선교의 열정에도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우리의 말과 기도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순모임과 프리뷰 모임마다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이 순장님들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공동체 목사님들은 순장님들의 신실한 걸음을 늘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권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도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6월 4일 본문, P168 |

본문의 핵심 Focus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어느 교회의 70대 성도는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위로하며 기도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좋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12:1-11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1세기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동서 해상 무역의 관문이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류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Aphrodite, 그리스 여신) 신전, 이시스(isis, 이집트 여신) 신전, 유대인 회당 등이 공존했습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나 황홀경 등 신비한 경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상업 도시의 특성상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고린도 사람들은 경쟁과 자기 과시에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성 등을 서열로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다’(하나이심)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하며 ‘은사의 다양성은 우열과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을 삼위 하나님과 각각 연결해, 대립과 우월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10절)

2 < 관찰과 묵상 모든 은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11절) 그분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7절)

3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싶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 Review the Text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이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 우열의 잣대로 비교하는 상대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절대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야 할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Pray through the Text

- 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 ② 받은 은사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0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5월 1일 본문, P174 |

본문의 핵심 Focus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어느 교회의 70대 성도는 온화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위로하며 기도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좋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12:1-11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 Now concerning spiritual gifts, brothers, I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2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2 You know that when you were pagans you were led astray to mute idols, however you were led.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일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Therefore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no one speaking in the Spirit of God ever says “Jesus is accursed!” an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4 Now there are varietie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5 and there are varietie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6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6 and there are varieties of activities, but it is the same God who empowers them all in everyone.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7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8 For to one is given through the Spirit the utterance of wisdom, and to another the utterance of knowledge according to the same Spirit,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9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11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9 to another faith by the same Spirit, to another gifts of healing by the one Spirit,
 10 to another the working of miracles, to another prophecy, to another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spirits, to another various kinds of tongues,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11 All these are empowered by one and the same Spirit, who apports to each one individually as he wills.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1세기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동서 해상 무역의 관문이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류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Aphrodite, 그리스 여신) 신전, 이시스(Isis, 이집트 여신) 신전, 유대인 회당 등이 공존했습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살았던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나 황홀경 등 신비한 경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신성한 것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상업 도시의 특성상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고린도 사람들은 경쟁과 자기 과시에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성 등을 서로로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다'(하나이심)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하며 '은사의 다양성은 우열과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을 삼위 하나님과 각각 연결해, 대립과 우월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10절)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해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결정을 하는 은사이고, 지식의 말씀은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은사이고, 병 고침은 육체적, 영적 질병을 고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은 초월적인 일을 행하는 은사이고,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은 어떤 현상이 성령과 악한 영 중 누구에게서 왔는지 구별하는 은사이고, 방언은 외국어나 영적 언어로 말하는 은사이며, 통역은 방언으로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2 < 관찰과 묵상 모든 은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11절) 그분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7절)

은사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시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해설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은사는 사람이 요청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은사는 받는 사람의 개인적 만족이나 기쁨보다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합니다. 은사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보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성령님)께 우리의 사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3 <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싶은지 나누어 보세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받았거나 받고 싶은 은사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싶은지 나누도록 모임을 이끌어 주세요.

예시 “경청하는 은사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겠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르게 결정하겠습니다.” “순종의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반대의 사람을 본 적 있다면,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이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 우열의 잣대로 비교하는 상대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절대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야 할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 2 받은 은사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7절 바울은 12:8-11에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의 예를 제시하기 전에, 12:7에서 영적 은사에 대한 자신의 핵심 입장을 간결하게 선언합니다. 곧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각 신자가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필요를 섬기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14장 끝까지 이어지는 그의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각 신자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다른 신자들이 세움을 받고 필요한 사역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8-11절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나오미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 재혼이나 자녀 출산의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1:11-12 참고). 과부는 종종 착취당하거나(사 10:2), 무시되고 방치되기도 했습니다(사 1:23). 물론 하나님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셨지만(신 14:28-29; 24:19-21; 26:12-13),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미래는 구결과 빈곤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컸으며, 모압에는 친족도 없어 더욱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 말씀의 은사들 (지혜와 지식)

그두 종류의 메시지를 담은 첫 번째 그룹이 목록의 맨 위에 배치된 이유는, 말 못 하는 우상들(12:2)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 직접 말씀하시는 즉각적인 보기(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평행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지혜(Wisdom):** 실천적인 삶의 문제나 잠언적 지혜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조언과 가장 잘 연결됩니다.
- **지식(Knowledge):**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독교적 관점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바울이 1장 18절~2장 16절에서 반복하는 세상의 헛된 지혜 및 지식과 대조되는 '기독교적 지혜와 지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 다섯 가지 기타 은사들

바울은 12장 9절에서 이 기타 은사 그룹의 첫 번째로 '믿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모든 신자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이 불확실해하고 의문을 품거나 어떤 행동을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특별한 확신을 의미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 특별한 믿음의 은사는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언급된 다음 두 가지 은사, 즉 병 고치는 능력(신유)과 능력 행함(기적)과 중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은사 역시 서로 겹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병 고치는 능력:** 신자들에게 닥친 개인적인 질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 **능력 행함:** 시인 당국(정권)에서부터 악한 영적 세력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을 압도하려 위협하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네 번째 항목인 '예언'(12:10b)은 바울이 이미 11장 2~10절에서 고린도 신자들의 공적 예배 모임의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언은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영들 분별함'은 예언의 은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예언처럼 보이는 통찰들이 서로 모순되어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림을 암시할 때, 혹은 단독으로 선포된 어떤 예언이 너무 터

무니없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메시지인지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 은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반드시 '거짓 선지자'라는 뜻은 아니며, 단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 방언과 방언 통역

마지막 그룹은 문자 그대로 '방언(다양한 언어들)'과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 그룹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이 은사들이 부당하게 과대평가되어 나중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언 현상은 실제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다른 신자들이나 청중이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형태의 구어적 표현(verbal demonstration)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시슬턴(Thielton 2000:285-288)이 잘 설명하듯, 최근의 설득력 있는 제안은 로마서 8장 26절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을 고린도 교회의 방언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생산적인 창으로 바라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언어의 기저에 흐르는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터치하셔서, 신자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개인적 생각과 염려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의 주해 내용은 William Baker, 1 Corinthians: Cornerstone Commentary 에서 발췌함)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2, 6월 8일 본문, P170

본문의 핵심 Focus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약 시간과 방식 등이 잘못되면 몸을 낮게 해야 할 약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선행을 베풀었는데, 선한 의도와 달리 오히려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13:8-13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풍성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활발했지만,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고,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영적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과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만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결핍된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따르느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지 논쟁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사가 작동하는 핵심 동력이자 토대가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라 해도 사랑이 결여되면 우리는 팽과리처럼 소음에 불과합니다. 어떤 은사보다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9-10절)

.....

2 < 관찰과 묵상 >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무엇인가요? (13절)

.....

3 < 적용과 나눔 > 성령의 은사를 비롯해 이 세상의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선시하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풍성했지만 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도구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뵈는 그날 곧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언, 방언, 지식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 2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소서.



독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5, 5월 28일 본문, P182 |

본문의 핵심 Focus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마음열기 Ice Breakers

몸이 아픈 사람에게에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약 시간과 방식 등이 잘못되면 몸을 낮게 해야 할 약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거나 선행을 베풀었는데, 선한 의도와 달리 오히려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고린도전서 13:8-13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8 Love never ends. As for prophecies, they will pass away; as for tongues, they will cease; as for knowledge, it will pass away.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9 For n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0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 but owhen the perfect comes, the partial will pass away.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11 When I was a child, I spoke like a child, I thought like a child, I reasoned like a child. When I became a man, I gave up childish ways.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2 For pnow we see in a mirror dimly, but q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then I shall know fully, even as rl have been fully known.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13 So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풍성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활발했지만, 그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고,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영적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광과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만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결핍된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따르느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지 논쟁 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넣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사가 작동하는 핵심 동력이자 토대가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라 해도 사랑이 결여되면 우리는 팽귀리처럼 소음에 불과합니다. 어떤 은사보다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 < 관찰과 묵상 >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9-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해설 “부분적”이라는 말은 현세를 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뜻 등에 대해 일부분만 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일부분만 아는 이유는 온전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수단인 예언, 방언, 자식이 폐하고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8절).

2 < 관찰과 묵상 >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무엇인가요? (13절)

그중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해설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이 모두 폐한다고 말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오히려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있다'는 말은 현세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덕목 중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강조합니다. '제일'이라는 말은 비교급 형용사로 '더 큰', '더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믿음과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도 새겨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3 < 적용과 나눔 > 성령의 은사를 비롯해 이 세상의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우선시하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포인트 순장님은 순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할지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을 이끌어 주세요.

예시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제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TIP 풍성한 나눔을 위해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말씀다지기 > Review the text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풍성했지만 사랑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도구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서 뵈는 그날 곧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언, 방언, 지식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 2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하소서.

8절 바울은 앞선 1~3절의 목록 중 세 가지 은사, 즉 예언과 방언(앞선 순서를 뒤바꿈) 그리고 지식을 대표격으로 특별히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앞서 언급했던 '믿음'을 빼뜨린 것은 주목할 만한데, 믿음은 13장 13절에서 사랑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항목으로 다시 분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나 '몸을 제물로 내어주는 희생' 역시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들은 사실 그 자체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장 8절에서 사랑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며 중단될 수도 없다(문자 그대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고 단순하게 선언한 후, 예언과 방언, 그리고 특별한 지식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 **은사의 한계(13:9):** 바울은 방언을 제외하고, 예언과 지식 모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계시'만을 제공할 뿐 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너무나 광대하여, 신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인간이 감히 다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제한이 끝나는 날(13:10):** 그러나 그 한계가 끝나는 바로 그날, 예언의 말씀과 특별한 지식의 필요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 신자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걸리던 지식은 더 이상 아무런 목적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11-12절 13장 11~12절에서 바울은 부분적인 지식이 온전한 지식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도입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13:11)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사이에 일어나는 지식의 거대한 변화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는 부모와 주변 환경이 전달해 주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 수준은 아이들이 겨우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 기능하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치 다 자란 후에는 장난감을 영구히 치워버리는 것처럼, 어린아이 시절의 지식도 언젠가는 영원히 버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거울의 비유(13:12)

바울의 두 번째 비유는 거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닦인 거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을 간접적인 이미지로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제 삶에서 누군가를 가까이서 대면하여 보는 것, 혹은 실제 삶에서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perfect clarity)' 보는 것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의 얼굴은 고유하며 개인의 인격을 물리적으로 대변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얼굴조차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에 불과하며, 참된 인간성의 캐리커처(단편)일 뿐입니다. 참된 인간성은 우리의 친구나 가족, 심지어 배우자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거울을 통해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의 창조주만이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며, 온전함이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 너머에 있는 우리 인격의 경계선까지 응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방식 그대로 온전히 알려지게 될 것이며, 자기 이해를 향한 갈구는 마침내 끝이 날 것입니다.

(위의 주해 내용은 William Baker, 1 Corinthians: Cornerstone Commentary 에서 발췌함)

6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주요 사역 일정

-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팀 리더십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 2026 Toon Town 을 위한 봉사자가 순조롭게 모집되고 모든 사항들이 은혜 가운데 빈틈없이 준비되게 하소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양육강좌(사도신경 공부)를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 21기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통해 어머니들이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 22기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6/2-10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비전트립팀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 6/26-7/4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의 손길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 '미션게이트'를 통해 매주일 드리는 1분의 작은 기도가 모여 큰 사랑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동대원으로서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순들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 됨을 이루게 하소서.
- EW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새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순과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 - 7월과 8월 동안 섬길 신실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세워 주소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사역에 지원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리마다 꼭 맞는 이들로 채워 주시며, 팀에게 인내와 격려를 더해 주소서. 또한 섬김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예배, 그리고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소서.
- Coram Deo - 한 학기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졸업하는 12학년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며 다음 걸음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 NEXT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니어들이 남은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026-2027학년을 위한 NEXT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보내 주소서.
- EW College - 학년말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여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NeWave - 뉴웨이브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인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더해지는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순의 비전 · 순모임 시간표(샘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 줍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교회도 '순'이라는 작은 공동체로 모입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나눔 통해 모든 순원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견디고, 이기게 됩니다. 지속적인 복음 전도를 통하여 순이 성장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분순의 과정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의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 형제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하게 될 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순모임은 2주마다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순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영역(90분)	모임 내용	모임 방향
환영 10분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여 마음을 열도록 도와 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경배 10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높여 드리십시오. 주님을 모임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적용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누십시오.	말씀 실천을 향하여
기도 20분	서로의 기도제목,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사역 10분	순 내에서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선교를 위해서도 순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불신자를 향하여

-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되, 다과는 최소한으로 준비합니다.
- 주중에 순장의 카톡과 질문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을 합니다.

· 2026년 순모임 프리뷰 일정 ·

일시	내용	비고
2월 1일	순모임 프리뷰	
3월 1일	"	공동체 30일 Kick off
5월 3일	"	
6월 7일	"	
9월 6일	"	
10월 4일	"	
11월 21일	순장, 교구장 리트릿	

• 위 일정은 교회 사역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주보에 게재 될 프리뷰 광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역은이 | 권준

퍼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연락처 | 425-488-1004